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중 언어폭력경험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연구

양승애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Verbal Abus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during Clinical Practicum of Nursing Students

Seung Ae Yang
Professor, Dept. of Nursing, Sung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중 경험하는 언어폭력, 감정반응,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4년제 간호대학 4학년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 106명이었으며 측정 도구는 언어폭력, 감정반응,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스트레스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언어폭력, 감정반응,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스트레스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언어폭력, 감정반응,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 선형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적용하였다.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언어폭력, 감정반응과 유의한 정적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83$, $r=.573$).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언어폭력($\beta=.487$), 감정반응($\beta=.240$)순으로 임상실습스트레스의 49%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중 언어폭력에 대처하고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 언어폭력, 감정반응,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스트레스, 간호대학생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verbal abuse, emotional response,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practice stress during clinical practicum of nursing students. Methods: A sample of convenience was 106 nursing students, and a questionnaire was used to measure their verbal abuse, emotional response,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practice stress.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Result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among verbal abuse, emotional response, clinical practice stress($r=.683$, $r=.573$). Grade of which the participant was in, verbal abuse($\beta=.487$), emotional response($\beta=.240$) were significant predictive variables of which accounted for 49% of the variance in clinical practice stress. Conclusion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can provide basic data on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to cope with verbal abuse and to manage stress under clinical practice

Key Words : verbal abuse, emotional re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practice stress, nursing student

본 논문은 2019년 성신여자대학교 교내학술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교신저자 : 양승애(ewha63@sungshin.ac.kr)

접수일 2021년 3월 25일 수정일 2021년 4월 27일 심사완료일 2021년 4월 28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이 반영하듯 폭력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의 폭력 또한 점차 증가되면서 안전한 병원환경이 위협받고 있다[1]. 환자와 보호자,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및 그 외 건강관리요원 등 여러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병원 내에서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 발생하기 쉽다[2]. 병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병원안에서의 폭력은 피해자로 하여금 침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Hoff와 Slatin(2006)은 간호사가 병원내 폭력의 주 피해자라고 제시한 바 있다[3]. 특히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간호사의 경우 환자에 의한 폭력에 더 취약한데[4] 동일한 환경에서 임상실습 교육을 받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간호사와 거의 동등한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임상실습교육이란 이론적 내용을 근거로 간호 실재를 적용하여 환자 및 다른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경험하고 실무의 복잡성, 불확실성 및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가 제공되는 현장교육이다[6]. 또한 창의력과 응용력을 증진시키고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학습을 통해 전문직 간호사로서 도약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는 필수적인 교육과정이다[7,8]. 하지만 임상실습중 간호대학생의 폭력 경험은 감정반응과 전공 교육과정, 임상실습환경 적응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향후 실무간호사로서의 올바른 직업관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병원 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경우 나이가 어린 간호사로 인지되고 병원내 타 직원과 비교할 때 경험과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폭력을 경험하기 쉽다[4]. 또한 사전계획된 실습교육일정에 따른 빈번한 실습지 이동으로 인해 매번 낮은 실습병동에서 새로운 대상자들을 직면해야 하는 임상실습 교육환경은 간호대학생들로 하여금 폭력에 더욱 취약한 위치에 처하게 할 수 있으므로 [9]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폭력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현장에서 67.8%가 언어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로 상대방의 병력이나 이유없는 상대방의 일방적 행동 때문에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터키에서 진행된 폭력경험, 유형 및 대처행동양식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연구참여학생중 50.3%가 폭력 경험을 나타냈으며 이중 91.6%의 학생이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11]. 언어폭력이란 말하는 사람의 언어적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주어 상대방의 자아개념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12]. 언어폭력 경험 후 간호사들은 자신에 대해 좌절감, 혐오감, 부적절감 등을 느끼게 되어 분노, 모욕감, 쇼크, 놀람 등의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13].

언어 폭력의 경험은 간호사는 물론이고 간호사보다 더 취약한 위치에서 폭력에 노출될 잠재적인 위험성이 높은 간호학생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간호대학생은 두렵고 낮은 병원에서 실습을 하면서 심리적 위축, 무력감, 무서움을 느끼는 등의 정서적 위험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14] 임상실습중 현장에서 폭력에 직면했을 때 간호대학생들은 즉각적인 감정반응으로 분노, 충격, 우울, 슬픔, 불안 등을 표현했다고 하였고[15] 터키에서 진행된 연구결과에서도 임상실습 현장에서 학생이 폭력에 노출된 경우 화, 분노, 적의를 경험하였다[11]. 병원내에서 역할이 모호하고 취약한 위치에 있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의 경험은 직접 대면할 수 밖에 없는 부정적인 경험과 외부로부터 발생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정서,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언어폭력에 노출된 간호대학생들은 이러한 이유로 학습에 대한 열정과 간호전문직에 대한 자긍심이 손상되어, 간호학과에서 타과로 전과하려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16,17,18].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실습 중 경험한 언어폭력의 잘못된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향후 안정적인 임상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실습교육의 긍정적인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개발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전문직관은 졸업후 임상간호사로서의 실무경험뿐만 아니라 학부과정의 전공이론 교육과 병행된 실습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는데[19] 특히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실습교육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확인되었다[20].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언어폭력 경험은 개인의 올바른 간호관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상실습기관내에서 언어폭력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잠재적으로 폭력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기간 중 언어폭력 경험, 폭력경험 후 감정 반응 및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언어폭력에 대처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실습교육환경에서 실습교육의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중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언어폭력, 감정반응, 간호전문직관, 임상스트레스와의 관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21년 1월 10일 ~ 1월 30일까지 S시, Y시, W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간호대학 4학년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 110명에게 온라인상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설문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온라인상으로 받은 후 google 설문지를 통해 연구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정규 교과과정중 2학기 이상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모든 대상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이 중 불충분하게 설문에 응답을 한 5명을 제외한 106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프로그램 3.1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경우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5, 효과크기 0.15, 예측변수 5개로 산정한 결과 표본수 102명이 제시되어 본 연구의 최종 대상자 수는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언어폭력

언어폭력경험은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Nam 등(2005)이 개발한 언어폭력 측정도구 17개문항을 기초로 Jung 등(2013)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21,22]. 총 11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폭력의 경험정도가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Jung 등(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0$ 이었고 [22]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0$ 이었다.

2.3.2 감정반응

언어폭력에 대한 감정반응은 Lanza(1988)가 개발한 Assult Response questionnaire(ARQ)를 기초로하여 Jang(2004)이 세가지 반응(정서, 신체, 사회적 반응)으로 번역한 내용중 정서적 반응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3,24]. 본 연구에서의 측정도구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반응을 강하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2.3.3 간호전문직관

Yeun, Kwon, & Ahn(2005)이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29문항을 기초로 Han, Kim, & Yun(2008)이 요인분석을 통해 18개 문항으로 축소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25,26].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Han, Kim, & Yun(2008)에서 Cronbach's $\alpha = .94$ 이었고 [26],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2.3.4 임상실습 스트레스

Kim & Lee(2005)가 Beck & Sriavastava(1991)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28,27]. 본 도구의 5개 하위영역은 5문항의 실습교육환경, 6문항의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4문항의 실습업무부담, 4문항의 대인관계 갈등, 5문항의 환자와의 갈등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 Lee(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28]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2.4 윤리적 고려

연구자가 온라인상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설문방법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권리로서 연구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거부, 중단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개인정보와 조사된 자료의 비밀을 보장하고 참여자의 자료는 부호화하여 처리하고 연구목적외로만 사용할 예정이고 연구종료 후 폐기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2.5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본 연구는 2021년 1월 10일 ~ 1월 30일까지 자료수집이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에게 온라인상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설문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할 경우 google 설문지를 통해 연구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응답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답례품(쿠폰)을 전달하였다. 설문응답에는 20분정도가 소요되었다.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는 통계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실수와 백분율로 일반적인 특성을 산출하였다.
- 2) t-test 또는 ANOVA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언어폭력, 감정반응,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 3) 피어슨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언어폭력, 감정반응,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4)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적용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성별로 남학생이 17명(16.0%), 여학생은 89명(84.0%)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1세 이하가 43명(40.6%), 22~23세인 경우 47명(44.3%), 24세 이상은 16명(15.1%)이었다. 종교가 '있다' 라고 응답한 경우 29명(27.4%), 종교가 '없다' 라고 응답한 경우 77명(72.6%)이었으며, 연구 대상자 중 '좋은 편' 이라고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응답한 경우가 49명(46.2%), '보통' 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6명(43.4%), '좋지 않은 편' 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1명(10.4%)이었다. '만족한다' 라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한 경우는 75명(70.8%), '보통' 은 23명(21.7%), '불만족한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8명(7.5%)이었으며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만족한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90명(84.9%), '보통' 은 14명(13.2%)으로 나타났다. 또한 '좋은 편이다' 라고 대인관계를 응답한 경우가 81명(76.4%), '보통' 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4명(22.6%)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0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
Gender	Male	17(16.0)
	Female	89(84.0)
Age (year)	≤ 21	43(40.6)
	22 ~ 23	47(44.3)
	≥ 24	16(15.1)
Religion	Yes	29(27.4)
	No	77(72.6)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49(46.2)
	Moderate	46(43.4)
	Not good	11(10.4)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75(70.8)
	Moderate	23(21.7)
	Dissatisfied	8(7.5)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ied	90(84.9)
	Moderate	14(13.2)
	Missing	2(1.9)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81(76.4)
	Moderate	24(22.6)
	Missing	1(.9)

3.2 대상자의 언어폭력, 감정반응,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상자의 언어폭력 정도는 평균 1.77±.34, 감정반응은 평균 2.54±.72,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3.69±.49,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평균 2.76±.51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경험한 언어폭력 항목 중 '반말을 한다'(3.09±.77)는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고 '명령조로 말을 한다'(2.25±.85), '언어폭력을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2.21±.8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가 언어폭력을 경험한 후 느끼는 정서적 반응들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화난다' 3.48±1.22점으로 그 외 반응으로 '짜증이 난다'가 3.41± 1.23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후회스럽다'가 3.25±1.19점 순으로 제시되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하위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실습 교육환경' 3.37점, '실습업무부담' 3.14점,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2.68점, '환자와의 갈등' 2.42점이었으며 '대인관계 갈등'은 2.2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2〉 Mean of Verbal Abuse, Emotional Re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Practice Stress (N=106)

Variables	Item	Mean±SD
Verbal Abuse	Expressing anger & swearing	1.79± .61
	Talking down	3.09± .77
	Expressing words of looking down on my position	1.69± .77
	Speaking in a commanding tone	2.25± .85
	Threatening	1.42± .66
	Expressing sexually insulting words	1.30± .57
	Making sarcastic remarks about my physical appearance	1.29± .55
	Criticizing my personality	1.22± .54
	Expressing words of underestimating my ability	1.91± .83
	Expressing words of looking down on my educational background	1.28± .57
	Having witnessed that others were experiencing verbal abuse	2.21± .81
	Total	1.77± .34
Emotional Reaction	Feeling sad	2.68± 1.04
	Feeling depressed	2.77± 1.14
	Feeling angry	3.48± 1.22
	Feeling anxious	2.64± 1.17
	Feeling shocked	3.02± 1.17
	Doubting self-worth	2.17± 1.25
	Using denial	2.11± 1.06
	Blaming oneself for the assault	2.10± 1.16
	Feeling that something should have been done to prevent the assault	3.25± 1.19
	Feeling guilty	1.91± .94
	Feeling afraid of being alone	1.98± 1.10
	Feeling helpless	2.58± 1.29
	Feeling loss of control	2.15± 1.19
	Feeling ashamed	2.58± 1.30
	Feeling increased irritability	3.41± 1.23
	Feeling of loss	2.79± 1.34
	Feeling fear of returning to the scene	1.95± 1.13
	Feeling like to have a leave absence	1.90± 1.10
Feeling withdrawn	2.84± 1.34	
Total	2.54± .72	
Nursing Professionalism		3.69± .49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	3.37± .69
	Undesirable role models	2.68± .68
	Practice burden	3.14± .71
	Interpersonal conflict	2.20± .65
	Conflict with patients	2.42± .72
	Total	2.76± .51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언어폭력, 감정반응,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차이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정도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은 ‘임상실습 만족도’($t=3.545, p=.001$), ‘대인관계’($t=2.793, p=.006$)였다. 임상실습 만족도의 경우 ‘만족한다’ 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 경험은 연령($F=3.129, p=.046$), 종교($t=-2.219, p=.029$), 임상실습만족도($t=3.952, p=.000$), 대인관계($t=2.572, p=.01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e 검정을 통해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한 결과 연령이 ‘21세 이하’인 경우가 ‘22~23세’, ‘24세 이상’인 경우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언어폭력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종교를 갖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종교가 없는 대상자보다 언어폭력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를 ‘보통’ 이라고 응답한 경우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언어폭력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반응은 성별($t=-2.481, p=.015$), 임상실습 만족도($t=2.643, p=.010$), 대인관계($t=2.500, p=.01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감정반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을 ‘만족’하는 경우, 대인관계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각각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감정반응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의 경우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Table 3〉 Difference of Verbal Abuse, Emotional Re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Practice Stres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06)

Characteristics	Categories	Verbal Abuse		Emotional Reaction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Gender	Male	1.69± .38	-1.027(.307)	2.15± .79	-2.481(.015)
	Female	1.78± .34		2.61± .69	
Age (year)	≤21	1.64± .26	3.129(.046) a(b,c)	2.39± .63	-7.25(.470)
	22 ~ 23	1.84± .34		2.65± .74	
	≥24	1.93± .43		2.64± .87	
Religion	Yes	1.89± .35	-2.219(.029)	2.63± .79	-.046(.963)
	No	1.72± .33		2.51± .69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1.77± .37	.091(.913)	2.53± .77	.036(.965)
	Moderate	1.78± .34		2.55± .69	
	Not good	1.73± .22		2.58± .67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76± .31	.897(.411)	2.54± .68	1.706(.187)
	Moderate	1.73± .43		2.42± .79	
	Dissatisfied	1.92± .37		2.96± .81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ied	1.71± .32	3.952(.000)	2.45± .69	2.643(.010)
	Moderate	2.07± .30		2.97± .65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1.72± .31	2.572(.015)	2.45± .70	2.500(.014)
	Moderate	1.95± .40		2.86± .7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Practice Stress	
		M±SD	t or F(ρ) Scheffe	M±SD	t or F(ρ) Scheffe
Gender	Male	3.59± .58	.946(.347)	2.62± .70	-1.299(.197)
	Female	3.71± .47		2.79± .47	
Age (year)	< 21	3.81± .35		2.66± .39	.871(.420)
	22 ~ 23	3.60± .51	2.206(.113)	2.81± .51	
	≥ 24	3.64± .69		2.90± .76	
Religion	Yes	3.61± .54	1.108(.271)	2.86± .56	-1.150(.253)
	No	3.72± .47		2.73± .49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3.70± .47	.100(.905)	2.74± .50	.404(.668)
	Moderate	3.67± .54		2.81± .53	
	Not good	3.74± .37		2.67± .50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3.74± .48	2.99(.054)	2.77± .50	.511(.601)
	Moderate	3.65± .43		2.70± .52	
	Dissatisfied	3.31± .64		2.92± .62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ied	3.71± .46	-.382(.703)	2.68± .49	3.545(.001)
	Moderate	3.66± .59		3.17± .44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3.73± .49	-1.489(.140)	2.69± .47	2.793(.006)
	Moderate	3.57± .48		3.01± .60	

3.4 대상자의 언어폭력, 감정반응,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언어폭력, 감정반응,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정도는 언어폭력, 감정반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83, p<.001, r=.573, p<.001$). 언어폭력은 감정반응과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다($r=.584, p<.001$)<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106)

	Emotional Re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Practice Stress
Verbal Abuse	.584 ($p=.000$)	-.189 ($p=.052$)	.683 ($p=.000$)
Emotional Reaction		-.186 ($p=.056$)	.573 ($p=.000$)
Nursing Professionalism			-.174 ($p=.075$)

3.5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언어폭력 및 감정반응과 임상실습 만족도, 대인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어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 충족여부를 확인한 결

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회귀 모형은 F값이 24.885이었고 p 값은 $<.001$ 로 유의하였으며 Durbin-Watson통계량을 통해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분석한 결과 1.833으로 오차의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독립변수들간 공차한계 범위는 0.615~0.911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계수(VIF)가 1.097-1.626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언어폭력($\beta=.487, p<.01$), 감정반응($\beta=.240, p<.05$)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49%(Adjusted $R^2=.487$)이었다.

<Table 5>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Stress (N=106)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612	.536		3.009	.003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129	.113	-.087	-1.137	.258
Interpersonal relationship	-.076	.091	-.062	-.833	.407
Verbal Abuse	.726	.135	.487	5.363	.000
Emotional Reaction	.174	.063	.240	2.775	.007

$R^2 = .504$ Adjusted $R^2 = .484$ $F = 24.885$ $P < .001$
 $VIF = 1.097 \sim 1.626$ Durbin-Watson = 1.833

4. 논의

본 연구는 임상실습중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언어폭력, 감정반응,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언어폭력에 대처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실습교육환경에서 실습교육의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평균 2.76점으로 나타나 Min(2018)의 2.5점, Jang(2016)에서 2.62점과 유사하였으나 Kim & Lee(2005), Kim(2021)의 결과에서 제시한 각각의 평균 점수 3.3점, 3.26점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9,30,28,31].

임상실습 스트레스 하위 영역별 점수는 '실습교육환경' 3.37점, '실습업무부담' 3.14점,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2.68점, '환자와의 갈등' 2.42점이었으며 '대인관계 갈등' 2.2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Min(2018)에서는 '실습업무부담'이 가장 높고 '실습교육환경',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환자와의 갈등' 순

이었고 '대인관계 갈등'은 가장 낮은 점수를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29].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지식 및 간호중재를 실제 임상실습에서 적용하는 것과 병원환경 적응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29]. 그러므로 학생들이 실습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 전에 병원환경을 이해하고 병원환경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실습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학생들이 각 실습교과목 실습 목적과 학생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여 체계적인 실습교육이 진행되도록 긴밀한 산학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2].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실습 만족도, 대인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령과 학년 그리고 실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선행연구[28]와 부분적으로 일치됨을 확인할 수 있다. Jeong & Lee(2016), Jang(2016), Min(2018), Kim(2021)에서도 실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제시하여 [10,30,29,31] 임상실습 만족도를 반영하는 요인이 공통적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작용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Hong & Kim(2014)은 체계적인 프리셉터십을 적용하여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33]. 따라서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리셉터십을 적용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 측면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언어폭력 경험 정도는 평균 $1.77 \pm .34$ 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im(2021)의 1.88점과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F=3.129, p=.046$), 종교($t=-2.219, p=.029$), 임상실습만족도($t=3.952, p=.000$), 대인관계($t=2.572, p=.01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e 검정을 통해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한 결과 연령이 '21세 이하'인 경우가 '22~23세', '24세 이상'인 경우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언어폭력 정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선행연구 결과[34,22]에서는 '연령'이 아닌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제시하여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제시함에 따라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교를 갖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종교가 없는 대상자보다 언어폭력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Kim 등(2011)과 Kim(2021)의 결과와 비교해볼 때 종교유무에 따라 언어폭력 경험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교가 없는 학생이 실습중 언어폭력을 경험한 정도가 더 높은 것을 제시하여 [34,31]본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같은 학과 대상자들이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간호대학이 속해있는 지역별 특성이나 대학의 교육과정 및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를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언어폭력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h, Kim, & Lee(2015)에서는 본 연구와는 다른 도구로 폭력경험 정도를 파악하였는데 대인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여[35]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였다. '반말', '명령조의 말', '지위에 대해 무시하는 말' 등이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언어폭력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22] 바와 같이 반말과 높임말로써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가부장적인 우리나라 문화에서 자신의 높은 지위를 표현하기 위해 반말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게 되고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기 위해 강압적인 명령조의 말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36]. McNamara(2012)는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근거해서 근무지에서의 언어폭력과 같은 무례함이 발생한다고 하였다[37].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중 경험하는 언어폭력과 감정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과 학생 맞춤형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며[22] 폭력문제를 학생 개인의 문제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폭력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개방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폭력발생시 보고체제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과 임상실습기관간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35].

대상자의 언어폭력에 대한 감정반응은 평균 2.54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 Park(2014)에서는 2.46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나[38] Moon(2013)에서는 1.93점이었고 Kim 등(2011)에서는 1.69점을 제시하여 본 연구보다 낮은 정도를 제시하였다[39,34]. 감정반응은 성별($t=-2.481, p=.015$), 임상실습 만족도($t=2.643, p=.010$), 대인관계($t=2.500, p=.01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감정반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을 '만족'하는 경우, 대인관계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각각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감정반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oon(2013)에서 성별,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제시하였고[39] Kim 등(2011)에서도 성별,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하였는데[34]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실습 중 느끼는 감정반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

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감정표출을 한다는 결과와 맥락이 일치한다[40]. 연구 대상자들이 언어폭력 경험후 느끼는 정서적 반응에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고 후회스럽다'와 같은 부정적 정서반응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 등(2011), Moon(2013) 그리고 Jeon(2018)에서 '화가남', '짜증이 남',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후회스러움' 등을 제시하여[34,39,41]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Park, Lee, & An(2017)는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중 폭력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인 감정반응으로 분노, 충격, 우울, 슬픔, 불안등을 제시하였고[15] Jung 등(2013)에서도 화가남, 위축됨, 우울등을 제시하여[22]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간호대학생들이 아직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미숙하고 자신들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언어폭력 경험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완화시키고 예방하기 위해 의사소통 훈련, 자기주장 훈련과 더불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폭력경험 후 학생들이 느끼는 부정적 정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면 및 웹상담 시스템의 준비가 시급하다고 사려된다. 또한 폭력에 대한 보고가 잘 진행되고 폭력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산학협력의 정책과 절차가 준비되어 안전한 실습환경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22].

간호전문직관은 3.69±.49점으로 Jang(2016)의 3.93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30].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Jang(2016)[30]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으로 성별, 학점, 주관적 건강상태,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를 제시하였다[30] 본 연구결과와는 상이하였으므로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정도는 언어폭력, 감정반응과 통계적으로 양적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683, p<.001, r=.573, p<.001$) 언어폭력은 감정반응과 유의한 양적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r=.584, p<.001$). Jeong & Lee(2016)는 정서반응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간에 유의한 정적상관관계제시하였고[10], Kim(2021)은 언어폭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간에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31]. Kim 등(2011)과 Jeon(2018)은 언어폭력과 감정반응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제시하여[34,41] 본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실습시 언어폭력에 노출되어 극

도의 비난과 침해를 받아 업신여김과 모욕감을 받고, 자존감에 손상을 입어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감, 분노, 피로 정도가 높아져 반응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10]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언어폭력($\beta=.487, p<.01$), 감정반응($\beta=.240, p<.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49%(Adjusted $R^2=.487$)이었다. Jeong & Lee(2016)에서도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가장 높은 영향요인으로 언어폭력경험을 제시하여[10] 본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임상실습을 통해 미래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실습교육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도모하기 위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된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습 오리엔테이션 교육 프로그램과 언어폭력에 노출된 후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하는 감정반응을 조절하고 대처하기 위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Longo(2010)는 간호대학생들이 건강하고 협조적인 실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42]. 그러므로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폭력의 유형 및 유형별 구체적인 대처방법과 의사소통 훈련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리셉터십을 적용한 실습지도시 간호대학생들에게 긍정적 피드백과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세심한 배려와 지도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30].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간호대학생들을 편의 추출하여 조사한 것이므로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과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REFERENCES

- [1]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NIOSH), "Violence: Occupational hazards in hospitals", 2002, <http://www.cdc.gov/niosh/docs2002-101>
- [2] H. J. Jung, Y. S. Lee, (2011). "Nurses's experiences of verbal abuse in hospital setting, health communication".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Vol.6, No.2, pp.118-126, 1990.
- [3] L. A. Hoff, C. Slatin, "Workplace health and safety-Report of PHASE/MNA focus groups", Massachusetts Nurse, Vol.77, No.8, pp.6-6, 2006.

- [4] T. Ferns, E. Meerabeau, "Reporting behaviours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verbal abuse", *Leading Global Nursing Research*, Vol.65, No.12, pp.2678-2688, 2009.
- [5] P. A. Hinchberger, "Violence against female student nurses in the workplace", *Nursing Forum*, Vol.44, No.1, pp.37-45, 2009.
- [6] T. Levett-Jones, V. Pitt, H. Courtney-Pratt, G. Harbow, R. Rossiter, "What are the primary concerns of nursing students as they prepare for and contemplate their first clinical placement experienc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45, No.4, pp.304-309, 2015.
- [7] E. M. Ji, J. H. Lee, "Influencing Factors of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6, No.2, pp.1125-1140, 2014.
- [8] P. Cope, P. Cuthberston, B. Stoddart, "Situating learning in the practice place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31, No.4, pp.850-856, 2000.
- [9] T. Ferns, E. Meerabeau, "Verbal abuse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Leading Global Nursing Research*, Vol.61, No.4, pp.436-444, 2008.
- [10] Y. H. Jeong, K. H. Lee, "Effect of Verbal Abuse Experience, Coping Style and Resilience on Emotional Response and Stress During Clinical Practicu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3, pp.391-399, 2016.
- [11] A. Celebioğlu, R. B. Akpınar, S. Küçüköğlü, R. Engin, "Violence experienced by Turkish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settings: their emotions and behaviors", *Nurse Education Today*, Vol.30, No.7, pp.687-691, 2010.
- [12] D. A. Infante, C. J. Wigley, "Verbal Aggressiveness: an Interpersonal Model and Measure", *Communication Monographs*, Vol.53, No.1, pp.61-69, 1986.
- [13] D. Buback, "Assertive training to prevent verbal abuse in the OR", *AORN Journal*, Vol.79, No.2, pp.147-164, 2004.
- [14] H. O. Jeon, "A Grounded Theory Approach on Nursing Students' Experience with Overcome Psychological Crisis by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Health and Medical Science*, Cheongju University, Vol.6, No.2, pp.21-31, 2017.
- [15] S. N. Park, J. E. Lee, H. R. An, "A Study on Clinical Violence, Emotional Response, Resilience and Career Identify among Nursing Students", *Crisisonomy*, Vol.13, No.10, pp.87-101, 2017.
- [16] J. Y. Han,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2, No.5, pp.2595-2607, 2010.
- [17] E. M. Ji, J. H. Lee, "Influencing Factors of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6, No.2, pp.1125-1140, 2014.
- [18] S. Ünal, F. Hisar, Ü. Ü.Görgülü, "Assertiveness levels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 verbal violence during practical training", *Contemporary Nurse*, Vol.42, No.1, pp.11-19, 2014.
- [19] Y. R. Kim,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views on nursing profession of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 No.2, pp. 169-181, 1995.
- [20] J. J. Yang, "The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Perspectiv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6, No.2, pp.276-286, 2000.
- [21] K. D. Nam, G. S. Yun, H. S. Jeong, S. A. Park, B. Y. Jang, H. R. Kim, H. S. Eum, Y. H. Su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verbal abuse scale for operating room nurse", *Nursing Administration Journal*, Vol.11, No.2, pp.159-171, 2005.
- [22] H. J. Jung, H. I. Chung, K. J. Choi, A. Y. Cho, Y. M. Chae, K. H. Choi, J. H. Jo, "Experience, emotional reaction and coping behavior of verbal abuse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Vol.8, No.2, pp.99-108, 2013.
- [23] M. L. Lanza, "Assault response questionnaire", *Issues Mental Health Nursing* Vol.9, No.1, pp.17-29, 1988.
- [24] S. J. Jang,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patient' violent behaviors and burnout of psychiatric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04.
- [25] E. J. Yeu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5, No.6, pp.1091-1100, 2005.
- [26] S. S. Han, M. H. Kim, E. K. Yun,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14, No.1, pp.73-79, 2008.
- [27] D. L. Beck, R. Srivastava,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30, No.3, pp.127-133, 1991.
- [28] S. L. Kim, J. 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1, No.1, pp.98-106, 2005.
- [29] E. S. Min, "Relationship amo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Coping, Ego-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 Health Commun*, Vol.13, No.1, pp.71-78, 2018.
- [30] I. S. Jang, "The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27, No.3, pp.749-761, 2016.

[31] A. L. Kim, "The Mediating Effect of Verbal Abus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16, No.1, pp.170-176, 2021.

[32] I .S. Kim, Y. K. Jang, S. H. Park, S. H. S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3, pp.337-345, 2011.

[33] S. J. Hong, E. H. Kim, "Effects of Preceptorship on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y,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Practice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10 pp.6204-6214, 2014.

[34] S. H. Kim, H. J. Cho, J. H. Dong, J. M. An, B. R. Yun, G. Y. Lee, J. Y. Lee, H. M. Lee, J. H. I. Jang, " Verbal abuse, verbal abuse response, and stress on verbal abuse of nursing student in clinical training",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10, pp.249-266, 2011.

[35] J. H. Oh, O. S. Kim, K. L. Lee, " Exposure to violence and coping behavior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8, pp.5325-5335, 2015.

[36] Y. H. Cho, Y. R. Hong, A. M. Lee, M. K. Kim, H. J. Lee, A. K. Han, E. J. Kim, "Experience of verbal abuse, emotional response, and ways to deal with verbal abuse against nurses in hospital",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0, No.3 pp.270-278, 2011.

[37] S. A. McNamara, Incivility in nursing: Unsafe Nurse, Unsafe Patients. AORN JOURNAL Vol.95, No.4 pp.535-540, 2012.

[38] J. E. Park, "Nursing Student's experience, their response and coping method of violence in clinical setting ",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2013.

[39] H. J. Moon, "A Study on Nursing Students Experience in Verbal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2013.

[40] K. T. Kim, "Patterns of feelings expressed by Koreans, and Japanese based on gender", Journal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63, No.1, pp.17-36, 2007.

[41] H. O. Jeon, "The Effects of Verbal Violence in Clinical Practice, Academic Stress Coping, and Depression on Professional Self-concepts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cooperation Society, Vol.19, No.8 pp.501-512, 2018.

[42] J. Longo, " Combating disruptive behaviors : Strategies to promote a healthy work environment", The Online Journal of Issues in Nursing, 2010.

양 승 애(Seung-Ae Yang)

[종신회원]



- 198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이학사)
- 199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
- 2002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1985년 2월 ~ 2004년 3월 : 삼성제일병원
- 2004년 4월 ~ 2007년 1월 :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조교수
- 2007년 2월 ~ 현재 :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시뮬레이션 교육